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11월 16일(목)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한-페루 정상회담(11.16) 결과

- 방산, 공급망, 개발 협력, 인프라 등 분야 협력 강화 방안 협의 -
- 차기(페루) 및 차차기(한국) APEC 의장국으로서 긴밀 협력 약속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16, 목) 오전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페루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페루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8년 만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페루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임을 재확인하고, △방산, △공급망, △개발 협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양국이 그간 공군 기본훈련기(KT-1P), 해군함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산 협력을 진행해온 것을 평가하고, 페루 정부가 차륜형 장갑차 및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간 우수성을 입증해 온 우리 기업의 장갑차와 FA-50(경전투기)에 대한 페루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구리, 은, 아연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페루와 향후 광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페루의 광물 생산량 순위: 구리(세계 2위), 은(2위), 아연(3위), 납(4위)

페루는 한국의 구리·아연 5위 수입국

블루아르테 대통령은 기본훈련기(KT-1P), 다목적지원함 등 높은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지속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블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의 도움으로 국가 인프라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하면서, 페루가 검토 중인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양 정상은 2024년에는 페루가, 2025년에는 한국이 연이어 APEC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 만큼, APEC이 역내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